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

(에스겔 38:1~23)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이 총체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있습니다. 10절에서 너로 지목된 대상이 바로 선민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수장인 곡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지를 악행이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곡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마곡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온 세상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선민을 대적케 하시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본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포르투갈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1939년에 개봉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에게 레트 버틀러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했던 대사입니다. 원문에서는 “개는 짖어도 캐러밴은 계속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입니다.

캐러밴은 옛날의 무역상을 말하기도 하고 서부개척시대에 금을 찾아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던 개척자 무리를 일컫기도 합니다. 이 마차 대열이 마을을 지나갈 때에 개들이 마구 짖지만 신경도 쓰지 않고 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적들을 향해 사용한 이래 정치판에서 종종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청와대가 종전선언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라는 분이 이 말을 받아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논설을 투고합니다. 간단히 말해 나경원 대표가 뭐라고 하든지 북미 정상들이 신경이나 쓰겠냐는 것입니다. 나경원 씨든 전우용 씨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정치계에 쌓여있는 미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지나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민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가야만 합니다. 선민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도전을 받든 어떤 소리를 듣든 그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선민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선민과 선민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마곡에 속한 지방들의 이름으로 로스 메섹 두발 등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흑해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는 무척 멀리 떨어진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가까이에는 바사 구스 붓 고멜 등을 비롯한 여러 이방나라들이 언급되며 이들이 곡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 사람을 선민과 이방인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민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었지만 선민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하나로 일치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선민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선민과 이방인은 마음의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은채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담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담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민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분하시고 대처하시고 이끌어 가

시겠다는 것을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힘을 합쳐서 선민을 대적하지만 선민은 맞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곡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선민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민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이들을 멸절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절시키시고자 일부러 선민을 공격하게끔 도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년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모든 세대에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은 세상을 빠져나오는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세상에 경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터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말년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사건으로 부활사건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세상이 끝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예수님이 만드신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과, 터널을 빠져 나오지 않은 채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마음에 세상을 담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터널을 통해 세상을 빠져나온 사람은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에는 하늘을 담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들이 내려온 것은 곧 하늘의 영역이 무덤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늘기운을 담고 사는 동안에 육체가 속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마곡이라는 지역이 불분명하기에 그 왕인 곡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곡이 선민을 적대하는 세력의 수장으로써 마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중심으로 마곡지역의 나라와 민족이 연합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둘러싼 많은 이방민족들이 연합하여 선민을 대적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이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속담처럼 갈 길을 가야만 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기에 약속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들어와 살았지만 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라는 말씀이 특이합니다. 또 11~12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곡은 이 상황을 공격의 기회로 여기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당시의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칠십 년이 지나고서야 해방되어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선민들이 마주하게 된 고국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새로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니 성전재건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전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해보이기만 했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웬만큼만 있어도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선민의 모습을 이렇게 미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공포의 순간을 넘기고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을 여력도 문도 빗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거하고 염려 없이 거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자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적국의 침입을 막을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한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러한 선민의 나약함을 본 곡을 중심으로 이방 세력들은 선민들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13절을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변 이방나라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겼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민들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히 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선민도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선민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삶에서 평안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언에서 곡과 마곡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싸움을 하는 선민의 모습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민은 삶에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평강을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만보자면 결코 평안히 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 선민이 하는 일은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히려 이방인들을 막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도 발견됩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없다는 말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바국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에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선민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발병했다면 선민은 마음을 다해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평강을 얻기 위한 마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유이시고 참 기업이시며 참 몫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나마 기억해야 합니다. 암이 발생했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내 몫과 기업과 소유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암은 자꾸만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암 걸린 몸을 걱정하며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한편 암에 걸린 몸을 향하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심정을 갖는 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근거된 평강을 찾고 유지하고자 하는 싸움을 해나갈 때에, 암에 걸린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몸을 개로 여기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시기 전에 37장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선민은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한정짓는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선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암에 걸린 몸을 걱정하는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 암 걸린 몸 때문에 신경 쓰는 마음이 무덤에 묻힌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과정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몸이 처한 세상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 계셨지만 동시에 세상 바깥에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는 천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하늘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활절 설교를 통해 다루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선민은 곧 부활을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짖는 개입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경 쓰는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속함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와 마음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선민에 대한 예언에서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이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칼을 피해 빠져나온 자들이었고 각 곳에 흩어졌다가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체제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선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인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처럼 허둥대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떠올리며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배를 개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의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 문제를 개로 여기세요.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 주님의 죽음과 무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와 돈 문제가 지배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얻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선민에게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도 없고 정비된 조직이나 체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자 그 삶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책임지십니다. 곡과 마곡을 일부러 공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명분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짖는 개로 여기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면 몸이 남아있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선민은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것으로 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세상을 빠져나와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부활의 순간은 곧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평강을 찾는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시며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젠 십자가 생활화가 부활의 생활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 번에 움켜 삼킬 수 있는 나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